

# KPGA코리안투어, 하반기 레이스 돌입

### 오늘 '카이도 다이내믹부산 오픈' 개막... 이정환과 이형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가 한 달 간의 휴식기를 끝내고 부산에서 하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올 시즌 11개 대회에서 11명의 우승자를 배출한 가운데 시즌 첫 다승자가 탄생할 지 관심이 쏠린다.

하반기 첫 대회인 카이도시리즈 동아회원권그룹 다이내믹부산 오픈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해운대컨트리클럽 로얄 실크 코스(파72·7054야드)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올 시즌 8개 대회를 확정할 카이도시리즈의 6번째 대회다.

총상금 7억원으로 시리즈 최종전인 카이도시리즈 투어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을 제외하고 상금 규모가 가장 크다.

코리안투어는 상반기 11개 대회에서 매번 다른 얼굴의 챔피언을 배출했다.

지난해 최진호(33·현대제철)와 주흥철(36·동아회원권) 등 2명의 다승자를 배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 시즌 대회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다승자도 서둘러 탄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어느 해보다 치열한 우승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회는 상반기 우승자 11명 중 7명이 출전해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정환(26·PNC)과 이형준(25·JDX멀티스포츠)이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정환은 상반기 9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과 준우승, 3위를 각각 1차례씩 차지하는 등 '톱10'에 5번 들었다.

첫 탈락이 없을뿐더러 공동 2위가 가장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정환(사진왼쪽)·코리안투어 카이도시리즈 동아회원권그룹 다이내믹부산 오픈에서 시즌 2승에 도전하는 이형준



좋지 않은 성적일 정도로 꾸준한 샷감을 과시하고 있다.

제네시스 포인트 2위 이형준은 2014년부터 매년 1승씩을 거두며 코리안투어 통산 4승째를 기록 중이다.

이형준(3381포인트)은 이정환(3660포인트)에 381포인트 뒤지고 있어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역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해 제네시스 대상과 상금왕을 석권한 최진호는 올 시즌 초반 다소 주춤했지만 SK 텔레콤 오픈 우승 이후 휴식기 동안 펼쳐진 이벤트 대회 '동아제약 동아IT

챔피언십'에서 1위를 하며 하반기 활약을 기대게 했다.

'코오롱 한국오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첫 승을 차지한 장이근(24)도 상금왕 경쟁에서 추격자들과 격차를 벌리겠다는 각오다.

/김민근기자



### 백승호, 바르셀로나 떠나 지로나 이적

백승호(20)가 바르셀로나를 떠나 지로나FC로 이적했다.

지로나 구단은 21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백승호의 완전 이적에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페탈라다 지로나(2군)팀에서 뛰게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백승호에 대해 "한국에서 축구 유학을 떠나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다"는 소개도 함께 했다.

전 소속팀 바르셀로나 역시 백승호와의 이별을 전했다. 바르셀로나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바르셀로나에서 성장한 백승호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한다. 지로나FC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길 바란다"며 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백승호는 올 시즌 페탈라다 지로나(2군)에서 뛰다 페탈라다 지로나(2군)는 3부 리그에 해당하는 세군다B 디비시온에 속해있다.

백승호는 페탈라다에서 적응을 통해 몸 상태를 끌어올린 후 내년 시즌 1군 합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 동방신기, 11월부터 일본 5대 돐 투어

K팝 1세대 한류 듀오 '동방신기'(TVXQ)가 일본 5대 돐 투어를 펼친다.

22일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오는 11월11일 삿포로 돐 공연을 시작으로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 등 일본 5개 도시를 순회한다.

총 14회에 걸쳐 65만 관객 규모다. 2013년, 2015년에 이어 올해까지 해외 뮤지션 사상 최초로 일본 5대 돐 투어 3회 개최 신기록도 세웠다.

동방신기는 유노윤호·최강창민 두 멤버의 전역으로 2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유노윤호는 지난 4월 20일 최강창민은 이달 18일 전역했다.

두 멤버 모두 30대에 접어들어 '단발' 아이돌로서, 전날 오전 서울에서 연 캠프 기념 아시아 투어 프레스 투어 기자회견 겸 인생의 제2막을 여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신들을 롤모델로 삼아온 후배그룹들에 대한 전념으로서 책임감도 드러냈다.

같은 날 오후 도쿄 롯폰기 힐스에서 연 기자회견도 대성황 속에 마무리됐다. 현지 5대 돐 투어 개최, 복귀 기념 컬렉션 앨범 발매 등 앞으로 일본 활동 계획에 대해 말했다.

동방신기는 특히 오는 10월18일 기준 일본 히트곡들을 모은 베스트 앨범 형식의 '파인 컬렉션 ~ 비긴 어게인'을 발매한다. 정규 앨범 '위드(WITH)'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후지TV, 니혼TV, NHK, TBS 등 주요 방송사를 비롯한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 닛칸스포츠 등 현지 60여개 언론사, 10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했다.

한편, 동방신기는 이날 오후 7시 홍콩 플라자 할리우드 쇼핑 센터에서 '아시아 프레스 투어'의 마지막 기자회견을 연다.



/뉴시스

# 류현진, 4일 쉬고 25일 등판 시즌 5승 도전

### 피츠버그전 우완 채드 콜과 맞대결

류현진(30·LA 다저스)이 피츠버그 파이리츠를 상대로 세 번째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다저스 구단이 22일 발표한 게임노트에 따르면 류현진은 25일 오전 5시15분(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리는 피츠버그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세 번째 시즌 5승 도전이다.

지난 7일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시즌 4승을 거둔 류현진은 이후 1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50)인 3일전, 20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50)인 무실점에 선발 등판했지만 승리와 연을 맺지 못했다.

어깨와 팔꿈치 부상으로 2년 간의 공백을 뚫고 올 시즌 복귀한 류현진은 19경기

(18경기 선발)에서 101%이닝을 소화하며 4승 6패 평균자책점 3.45를 기록 중이다.

시즌 초반과 달리 현재는 전성기적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올스타 휴식기 이후 5경기에서 29이닝을 던지며 패배없이 1승, 평균자책점 1.55의 성적을 거뒀다.

5승 재도전 상대인 피츠버그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많다.

류현진은 피츠버그를 상대로 통산 세 차례 등판 모두 승리를 따냈다.

19%이닝을 소화하면서 6실점만을 기록해 피츠버그전 평균자책점도 2.79에 불과하다.

피츠버그의 홈구장인 PNC 파크에서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는 것은 2014년 7월22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류현진은 7이닝 5

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 20일 디트로이트전에 선발로 나선 류현진은 4일을 쉬고 등판한다.

4일 휴식 후 등판은 올 시즌 4번째다.

류현진의 통산 4일 휴식 후 등판 성적은 10승 10패 평균자책점 3.67로 무난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3경기에서 승리없이 2패, 평균자책점 5.00으로 좋지 못했다.

류현진이 등판하는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낮 경기다.

낮 경기에 통산 23차례 등판한 류현진은 11승 7패 평균자책점 3.62를 기록했다.

류현진의 통산 야간 경기 성적은 21승 15패 평균자책점 3.20이다.

21일까지 60승 64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4위인 피츠버그는 팀 타율 0.248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가운데 22위에 머물고 있다. 팀 홈런은 119개로 29위다.



류현진의 선발 맞대결 상대는 우완 채드 콜(25)이다.

/김민근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